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4차)

1. 일 시 : 2013.01.22(화) 16:20 ~ 18:15
2. 장 소 : 대학본부·경영관 308호
3. 참 석 : 8명(위원장 정태준, 위원 박중환, 위원 최인수, 위원 문귀민,
위원 박정목, 위원 강인호, 위원 김진호, 위원 이채연)
4. 불 참 : 0명
5. 회의안건 : 1.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
2. 2013학년도 시설비 예산
3. 2013년 시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예산
4. 일반대학원/복지산업대학원 등록금 책정

◆ 위원장 정태준

1,2,3차 회의과정을 거치면서 2013년 예산과 시설비예산 등 많은자료를 질의하고 검토하였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였고 등록금 동결안을 제시하였다. 오늘 회의가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하고 학생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라고 묻다.

◆ 위원 문귀민

등록금에 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먼저 학생들이 가져온 연간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싶다 어떠한가라고 묻다.

◆ 위원장 정태준

일단안건부터 처리하는게 우선이다. 시간단축을 위해서 등록금에 관해서 먼저 의논 했으면 한다.

◆ 위원 문귀민

1월 21일 예산기획팀을 방문하여 2013년 예산과 시설비현황, 적립금현황, 법인전입금현황등 충분히 원하는걸 보았고 학교에서 각종공시지표 및 재학생충원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겠지만 7.1%의 인하여력이 있기에 등록금 3% 인하를 제시한다라고 하다.

◆ 위원장 정태준

생각에 온도차가 많은거 같다. 3차회의때 2011년 대학감사결과에 의한 7.1%의 인하여력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특수한예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2012년 등록금인하 가이드라인이 5%였고 우리는 5.1%를 인하하였다. 이해해달라. 3%를 인하하게 되면 2013년도 하고자하는 각종 중요사업들이 배제되어 경쟁력약화를 가져오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도 어렵기에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대학의 처해진 상황도 고민해줬음한다. 학생측에서 제시한 사업을 함께 고민하겠다. 3%인하는 어렵다고 하다.

◆ 위원 문귀민

2013년 예산이 현재 112억 초과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달라라고 하다.

◆ 위원장 정태준

TU 2020 장단기발전계획에는 학생들의 만족도, 교육프로그램, 시설환경 등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행가능한 것이 무엇이나에 초점을 두고 예산요구를 받았다. 그 중에서는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예산도 있지만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내용들이다. 불요불급한 내용들은 조정할 예정이며 기대효과, 목표성과 까지 챙기기위해 올해 성과관리팀도 만들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것이다라고 하다.

(예산기획팀장 : 특별예산으로 총154억이 요구되어졌다. 그 중 55억정도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99억은 일상적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조정을 거칠 것이다. 본예산만 본다면 57억정도 초과하였는데 수입이 한정되어 있어 지출예산에서 어떤식으로든 조정할 수 밖에 없다)

◆ 위원 문귀민

등록금인하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하로 인한 부분은 적립금에서 사용하면 되지않는가라고 묻다.

◆ 위원장 정태준

현재 TU 2020 장단기발전계획을 위해 필요하면 적립금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모두 목적성 적립금이며 사용할 경우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등 집행자채도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다. 단순히 당해연도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한 투입은 승인받기 힘들며 2016년 이후 학교의 위기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적립금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다.

◆ 위원 이채연

기업관점에서 본다면 적립금은 기업의 자본이다. 생존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적립금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등록금인하 재원으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다.

◆ 위원장 정태준

학교는 이익을 남기는 영리법인이 아니다. 학교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등록금 및 등록금의 모든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절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학교측입장, 학생측입장, 사회적여건등을 고려해서 학교측이 동결을 제시한 것이니 이해해달라 라고 하다.

◆ 위원 박정목

학교를 불신하는거 아니다. 타대학 사례 중요하지 않다. 많은 자료를 보면서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생입장으로는 등록금인하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등록금을 동결할 것 같으면 학생측이 제시한 연간사업계획서 최대한 반영해달라라고 하다.

◆ 위원장 정태준

학생측의 입장 이해한다. 학교입장에서는 적정규모의 교육비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라고 하다.

◆ 위원 최인수

등록금을 동결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사업계획서를 알찬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의논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하다.

17:20 정회하고 17:30에 재개함

◆ 위원 박중환

학생복지를 최우선 해야겠지만 공공요금 등 불가인상으로 동결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봐서 동결을 해야한다라고 하다.

◆ 위원장 정태준

학생과 학교는 동반자적 입장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를 신뢰해줬음 하고 알차고 활성화된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건 모두 지원하겠다.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경쟁력이 제고되고 학생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 위원 김진호

사업계획에 학내문화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다.

◆ 위원 최인수

학교입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이 요구한 사업계획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학생측이 제시한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다.

◆ 위원장 정태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학생측의 입장을 이해한다. 다시한번 학생측의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다.

◆ 위원 문귀민

교수평가제 학생들 열람을 가능토록 해주시고 모든 교직원,학생이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동명대학교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교육분야, 취업률, 재학생충원율을 높일수 있도록 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다.

◆ 위원장 정태준

1안 2013학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안에 동의하느냐고 위원들에게 묻다.

◆ 위원일동

동의하다.

◆ 위원장 정태준

2안 2013학년도 학교시설비 예산에 동의하느냐고 묻다.

◆ 위원일동

동의하다.

◆ 위원장 정태준

3안 2013년 사학연금 교직원 법정부담금은 1,271,700천원으로 예상되며 그 중 685,000천원은 법인으로부터 전입되어질 법정부담전입금으로 부담하며 586,700천원은 학교부담으로 예산편성되어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교과부에 학교부담승인 신청시 금액이 변동될수 있는데 변동되면 다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행정상으로 재심의는 번거로움으로 금액변동에 대한 재심의는 따로 하지않고 이 자리에서 학교부담 승인신청시 금액변동에 대하여 학교를 믿고 위임해준다면 좋

겠더라고 하며 3안 2013년 시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예산에 대해 위원들에게 동의하느냐고 묻다.

◆ 위원일동
동의하다.

◆ 위원장 정태준
4안 일반대학원/복지산업대학원 입학금 동결, 수업료 동결안에 동의하느냐고 묻다.

◆ 위원일동
동의하다.

◆ 위원장 정태준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8:15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기획처	처장	정태준	정태준
학생처	처장	박중환	박중환
사무처	처장	최인수	최인수
총학생회	회장	문귀민	문귀민
총학생회	부회장	박정목	박정목
총대의원회	의장	강인호	강인호
총동창회	부회장	김진호	김진호
전문위원	세무사	이체연	이체연

간사 김승우 (서명)